

| 21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 코스닥                |
|                                                                                  | 4909.93<br>(+24.18) |                                                                                   | 951.29<br>(-25.08) |
|  | 금리 (국고채 3년)         |  | 환율 (원·달러)          |
|                                                                                  | 3.138<br>(-0.053)   |                                                                                   | 1469.60<br>(-8.50) |

시반도체 가격 폭등  
스마트폰·노트북  
가격인상 불가피  
03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 “황금알 거위 아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 다시 그려낼 것” 흥행참패 대책 필요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이 참여하며 경쟁없는 입성이 결정됐다.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물론 설명회에 참여했던 글로벌 면세 1위 기업 아볼타도 입찰을 포기한 결과다. 한 때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안기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 받던 인천공항이 기피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면세 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표면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익성 없는 임대료 구조 ‘비관론’ 롯데·현대 참여, 신라·신세계 불참 면세업계 1위 아볼타도 입찰 포기

일본 공항의 ‘도쿄 바나나’ 처럼 킬러콘텐츠 개발, 위기 벗어나야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마감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DF2 구역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에 롯데와 현대면세점 두 곳만이 참여했다. 신라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신세계면세점도 응찰 서류를 제출했다가 막판 철회를 결정했다. 아볼타는 물론,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흥행 참패의 원인은 인천공항의 기형적인 임대료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공항 이용객수에 해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된다. 여객 수가 늘어나면 임대료는 치솟지만 정작 여행객 1인당 구매액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의 임대료는 기존보다 5.9~11.1% 인하됐음에도 수익성을 보장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온라인 및 비대면 쇼핑에 익숙해지면서 공항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 매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공항공사

는 여객이 늘면 매출도 늘 것이라 낙관하지만, 사업자들은 객단가 하락으로 인해 팔아도 임대료 내기 벅찬 구조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이 과리가 입찰 흥행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업체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공항 면세점이 가지는 상징성에 있다.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제공항 면세점의 운영권을 가지는 것 만으로도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구매 우선권은 물론, 새로운 시장에 진출에 유리한 강력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공항으로, 브랜드가 입점하면 거대한 광고판 역할을 한다”며 “공항 매장이 있어야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상력을 높이거나 상품 바이파워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사들이 과열 경쟁을 피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적정 수준의 입찰가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공항 면세점이 이번 흥행 실패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임대료 구조를 가진 공항은 없을 것”이라며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매출 부진과 고환율이란 이중고인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면세업계에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천공항 면세점이 경쟁력을 찾기위해선 공항만이 가지는 킬러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혜진 시티면세점 대표는 “편의일물적인 제품으로 가격 경쟁만 하거나 문만 열어두면 팔리던 시대는 지났다”며 “일본 공항의 도쿄 바나나처럼 한국 공항에서만 살 수 있는 독자적인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방 주도 성장 등 5개전략 대전환 “국정운영 우선순위 모두 재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신년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성장 전략 대전환을 올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과거의 성장 공식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으로 수요 관리를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관리와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모으는 투기적 수요는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 수단에 더해 추가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관련기사 6면>

그러나 보유세 등에 대해서는 “세금은 국가 재정을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집값이 정부가 예상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편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지는 남겼다. 아울러 공급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1400원대 후반의 고환율 기조가 유지되는 데 대해서 “고환율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며 정책으로 쉽게 이길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면서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들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 기조에 대해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된 편”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을 기준으로 그대로 맞추면 1600원은 돼야 한다”며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는 편이라 보달라”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포고령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

는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반도체 문제는 대한민국과 대만의 시장 점유율이 80~90% 정도 될 것”이라며 “100%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물릴 경우 대부분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에, 트럼프 행정부도 선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코스피가 4900포인트까지 오른 데 대해서는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펀더멘탈 개선 없이, 반도체 등 일부 종목만 올랐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모두가 다 오르면 좋지만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 다 오를 순 없다”면서 “(주식시장)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고 했다. 특별한 현상 변화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상승한 것은 ‘정상화 과정’이라는 의미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 구윤철 “韓경제 대도약 원년… 정책과제 구체화”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中企 해외진출·자본 공급 확대  
상생금융 규모 1조→1.7조로”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 성장 및 전략적 수출금융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을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과 관련해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진



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재정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기존의 상생금융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현행) 1조 원에서 1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에 대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는 동시에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는 과징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전략적 수출금융’을 언급했다. 그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플랜트는 물론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인프라와 관련해선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며 “2026년에 총 2030억 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메트로 한줄뉴스



▲李 “원전, 필요시 신규 건설 검토…이념 전쟁도 구 안 돼”  
▲국힘 법사위원 “장동혁은 죽음 걸고 쌍륙검 외치는데李 뭐하나” /사진 뉴시스

▲與, 李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민국 대도약 비전·의지 느껴”  
▲국힘, 오늘 ‘장동혁 단식’ 대책 논의 긴급의총… “총의 모아 중단 설득해야”

▲조국 “이혜훈 자진 사퇴 안 하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장동혁 만난 이준석 “건강 먼저 챙기고 투쟁 나서야… 공동투쟁방안 마련할 것”